



진안군 여성단체협의회, 밀반찬 나눔 '훈훈'

진안군 여성단체협의회(회장 한은숙)는 최근 회원들이 정성들여 만든 밀반찬을 코로나19로 식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나눔 봉사하여 지역사회에 훈훈함을 전하고 있다.

진안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달부터 마을회관이 임시 폐쇄되어 독거노인 등 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어르신들의 식사 문제가 시급한 문제였다.

이에 여성단체 회원 20여 명이 정성껏 만든 소고기미역국, 콩치즈림 등을 만들어 독거노인 80여 가구에 직접 방문 배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한명의 생명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

탈북민 출신 평화우수산업체 김진희 대표... 밤낮으로 직접 만든 마스크 300장기탁

코로나19 확산이 진행중인 가운데 탈북민이 손수 만든 마스크를 장수군에 전달해 주변을 훈훈하게 하고 있다.

평화우수산업체 김진희(50) 대표는 지난 11일 재봉틀과 손바느질로 직접 만든 필터 교체형 마스크 300매를 장수군에 전달했다. 탈북민인 김 대표는 지난 2011년 국경을 넘어 2015년부터 장수에 정착했다.

탈북 과정에서 김 대표는 한 쪽 눈을 다쳐 실명했지만 자신보다 더 어려운 상황으로 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하는 이웃을 위해 일주일 밤낮으로 마스크 300장을 만들었다.

김진희 대표는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써 한명의 생명을 살리고 모두가 힘을 합쳐 코로나19를 극복하길 바라면서 만들었다”며 “마스크를 구매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전해달라”고 전했다.

장영수 군수는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이웃을 위한 따뜻한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다”며 “정성이 담긴 마스크는 꼭 필요한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기탁 된 마스크는 내부에 교체용 필터가 들어있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예방이 될 뿐 아니라 세탁을 통해 재활용이 가능하며 군내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순창소방서, 대구지역 119구급대 지원

순창소방서(서장 김현철)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동원령에 따라 이달 4일부터 구급차대와 구급대원을 파견해 대구지역 확진 환자 이송을 지원 중이라고 밝혔다.

소방서 내 지원인력으로 구성된 순창소방서 지원팀은 2인 1조, 총 3팀으로 나누어 이달 4일부터 대구지역 현장에서 환자 이송 지원 및 검체이송, 보건소 업무지원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재 지원된 구급대원은 소방교 채희철과 박종경을 선두로 13일부터 2차로 소방장 박건성, 소방교 성대영 대원이 뒤를 이어받아 코로나 확산방지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 구림파출소, 대형화물차 교통사고예방 홍보

순창경찰서(서장 정재봉) 구림파출소(소장 류근원)는 지난 13일 관내 통행하는 대형 화물차 운전자 등을 상대로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전단지 배부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실시했다.

이곳 구림면은 최근 추사 신축등으로 인해 대형화물차량이 소재지를 관통하는 등 통행량이 더욱 증가하여 사고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림파출소(소장 류근원)는 선제적 대응방안으로 화물차에 대한 단속보다는 전단지 배부 등 계도 활동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정읍시 사회복지 시설·단체, “대구·경북을 응원합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구·경북 지역 시민들을 응원하기 위해 정읍시 사회복지 시설과 기관들이 특별모금에 동참했다.

정읍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송운용)는 지난 11일 대구시 사회복지협의회에 코로나19 극복 특별 후원금 383만3,000원과 라면과 핫반 등으로 구성된 격려 물품 60박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한 기부금과 물품은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과 기관 33개소의 종사자와 시설 이용자 등이 십시일반 모은 후원금으로 마련됐다.

코로나19가 확산되자 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 주민들을 돕자며 한마음으로 긴급 모금에 동참했다.

모금 운동에 참여한 한 회원은 “대구·경북지역의 피해 상황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그냥 있을 수 없었다”면서 “힘든 상황일수록 도와야 한다는 생각에 모금 운동에



동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유진섭 시장은 “코로나19는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가 합심해 극복해야 할 부분”이라며 “정읍시민의 응원을 담아 보내는 물품으로 이번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내장상동, '행복나눔텃밭' 가꾸

내장상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한상민, 이상만)가 지난 13일 '행복나눔텃밭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봄 감자를 심었다.

이날 봄 감자 심기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주민센터 직원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400여 평 규모의 텃밭에 구슬땀을 흘리며 봄 감자를 심었다.

독지기의 무료입대 토지를 후원받아 이곳에서 감자 등 농작물을 수확해 지역 내 복지시설과 경로당, 저소득 가정에 나눔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다.

한상민 동장은 “코로나19로 불안하고 지친 주민들에 지역 사회의 희망이 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무진장소방서 의용소방대원, 코로나19 사태 극복 앞장서

무진장소방서(서장 박덕규)는 최근 코로나19 감염이 집단 감염사태로 번지면서 모두가 불안에 떨고 있는 가운데 관내 49개대 의용소방대원이 팔을 걷었다.

지난달부터 마을경로당, 전동시장 등 다중밀집장소를 중심으로 방역활동을 벌이고, 마스크 품귀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수제 마스크를 제작하여 관내 취약어르신들에게 배부하여 마스크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노력했다. 또한 약국으로 집중하는 구매자 불편사항 해소와 원활한 마스크 보급으로 주민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의용소방대원들은 마스크 구입을 위해 약국을 찾는 군민을 대상으로 마스크 대기 줄 안전관리와 구입 안내 등을 지원하며 1주일에 1인 2매 구매제한,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 판매, 중복구매 방지를 위한 확인시스템 가동등 마스크 3대 구매원칙 홍보를 펼치고 있다.



특히, 김봉관 의용소방대원은 지난달 12일 장수읍내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A(77세)씨를 구조하여 병원으로 이송해 치료를 돕고 귀가까지 시켜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 서 귀감이 되고 있다. /무주=전문서 기자

남원소방서, 봄철 화재예방대책 추진

남원소방서(서장 김광수)는 사계절 중 화재 빈도수가 높은 봄철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관계자에 따르면 봄철은 건조한 기후 탓에 임야, 야외·도로 등 실외화재가 쉽게 발생하며, 재산 및 인명피해 커 봄철 화재특성 및 원인 등 위험요인에 따른 맞춤형 화재예방대책으로 ▲취약계층 화재예방대책 ▲소규모 숙박시설 인명피해 절감 ▲석기탄산일 등 봄철 주요 행사장 화재안전관리 강화 ▲건축공사장 화재안전관리 강화 ▲산불예방 대책 추진 등이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인사

국토정보공사

◇전보 ▲최규성 부시장 겸 기획혁신본부장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